

## DOOSAN ART SCHOOL

### 두산아트스쿨: 공연

윤성호(극작가) × 이강욱(배우)

아 하면 어

2023. 8. 11.(금) 오후 2시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연출 윤성호, 연출이자 배우 이강욱입니다.

저희는 함께 극단 '아어'를 창단한 후, 다양한 작업에서 역할을 바꾸어가며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아어'를 연극 동아리, 혹은 연극 동호회라고 부르곤 합니다. 연극을 좋아하고, 함께 모여 연극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직 극단 이름으로 올린 작업의 수가 많지 않고, 다른 극단에 비해, 극단을 관통하는 이렇다 할 대단한 연극 철학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8명의 창작자가 모이고, 1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아어'라는 이름으로 '미인', '오해', '죽음의 집', '누수공사' 등의 작품을 일구어 오며 관객분들과 만나오고 있고 거기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거창함과 거리가 먼 극단,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평범한 두 명의 작업자가 무엇을 좇으며 만나게 되었고, 계속해서 좋아하는 연극 안에서 함께 존재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훑아 보려 합니다.

정신없이 앞으로만 걸어가다 문득 그간 걸어온 발자국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길을 보고 걸어온 게 아니라, 밟아온 여정에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서 다시 다음 방향을 가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연습실에서 무언가 만들어내려 발버둥 치는 시간과 매우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설레고 두렵고 기대됩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프롤로그. '해맞이'(2011)에서 '화성'(2023)까지의 협업 여정

1. 연극 예비군

- 각자 연극을 하게 된 계기와 협업의 계기가 된 우연한 만남에 대하여
- <해맞이. 미인.>

2. 아어와 아이들

- 극단 '아어'의 태동과 아어 '멤버들'에 대하여
- <여기 바냐, 희희희 - 잉크도 마르기 전에.>

3. 조리있는 부조리극.

- [작연출-배우]에서 [작가-연출] 관계로
- 아어 공연의 방향성:  
일상성과 비일상성, 조리있음과 부조리함의 경계
- <누수공사>

4. 연극은 재즈

- 경계를 넘나드는 협업
- 연습: 시도 그리고 수정, 끝없는 실행과 끝없는 수정.  
그리고 또 다른 시작  
그리고 개막. 그리고 수정 그리고 재막. 그리고...
- <죽음의 집>

5. 아 하면 어

- 진실한 순간을 만나기 위한 각각의 몸부림
- 아어로서의 현재와 미래
- <화성에서의 이인극>

**두산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에서부터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매년 다양한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산인문극장: 강연

두산아트스쿨: 미술

두산아트스쿨: 공연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